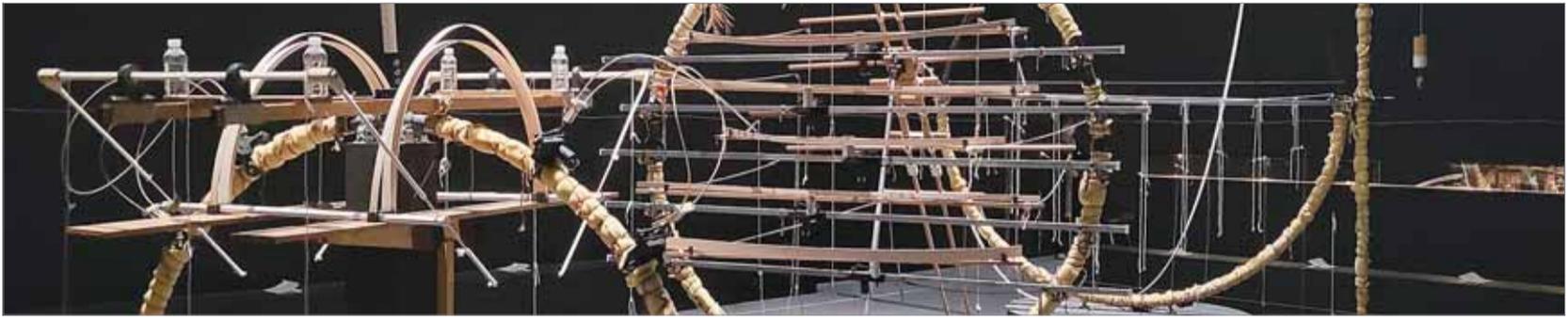


전시 공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과 올해의 작가상 2024

일상을 돌리는 조각, 앞길을 막아선 그물...

한국 현대미술의 눈길



도 시라는 거대한 공공장소에서 마주하는 미술이 있다면 미술관이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전시의 형태로 이뤄지는 미술도 있다. 미술관은 관람객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특히 공공의 의미를 재원공공적 기관으로 놓고 본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공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을 위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전시는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 문화의 현장이며, 넓은 의미에서 공공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 노출된 공간과 달리 전시를 보기 위해서는 미술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어떤 이에게 그것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공공의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전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방문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각 국가의 대표 미술관들이 심심찮게 추천 대상으로 떠오른다. 쉽게 볼 수 없던 유명한 화가의 작품과 전시 공간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기도 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여러 미술관, 전시관 등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이런 해외와 달리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는 국내 특성상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미술관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 뒤뜰에 있던 조선총독부 미술관 건물에서 처음 개관했다. 이후 4년 만인 1973년 덕수궁 석조전 건물로 이전한다. 기존 건물로 간판을 옮기며 이사 다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에 신축 건물을 지어 넓은 전시실과 수장고, 보존, 교육 기능을 갖춘 종합미술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미술관다운 시설이 드디어 갖춰진 것이다. 청계산 자락에 있는 덕에 자연경관과 넓은 조각공원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쉽게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후 1998년 덕수궁 석조전 서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으로 개관하고, 2013년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을 개관하며 도심 속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18년에는 전시실보다 수장고 비율이 높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터가 최초의 지역관으로 개관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술관으로 현재 서울·과천·덕수궁·청주 4개의 공간을 갖춘 큰 규모의 미술관이다. 각 공간에서는 연간 약 20회 이상의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각각의 전시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한다.

많은 전시 중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 2024’(2024년 10월 25일~2025년 3월 23일)는 전시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는 전시이자 미술 수상 제도다. 문학이나 영화, 방송 등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미술관에서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천·덕수궁·청주 4개 지역서 운영

‘올해의 작가상’ 선정 작가 4인 전시 한창 4색 개성 담긴 작품, 미술 트렌드 가늠자 내달 발표 최종 수상자, 나도 한번 맞춰볼까

품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 나갈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2012년 SBS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돼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선정된 작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추천단 추천으로 작가 4명을 선정,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가 종료된 이후 이 중 단 한 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한다.

작품의 예술성과 창조력, 동시대성, 발전 가능성, 국제적 역량, 기획력 등 여러 기준을 종합 검토해 후보 작가들을 선정하는 만큼 매년 열리는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요즘 현대미술 트렌드가 어떠한지 느낄 수 있다.

진행 중인 ‘올해의 작가상 2024’에서는 권하운, 양정욱, 윤지영, 제인 진 카이젠 4명의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관람 순서에 따라 돌아보면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윤지영 작가의 작품이다. 실제 그물과 비슷한 형태



양정욱(위) 작가와 윤지영 작가의 전시 전경. 필자 제공

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내장을 꺼내 그물을 짓던 때가 있었다’(2024)라는 작품이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입구를 반 이상 막고 있는 그물 작품을 지나며 궁금증을 갖다 보면 전시실 벽에 붙여진 설명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글에 따르면 전시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의도된 불편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하운 작가는 가상현실을 통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기억하고 기록을 재구성한다. 역사에서 사라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을 걷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는 특별한 경험이다. 3차원(3D) 애니메이션과 가상현실의 경험은 미술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궁금하게 한다.

양정욱 작가는 키네틱 조각, 즉 움직이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단순하고 작은 움직임과 그에 따라 유발되는 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명상적인 느낌을 준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사물로 형상화한다. 작품의 외형에서 직접 느껴지진 않지만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밤에서’ ‘서로 아껴주는 마음’ 같은 작품 제목은 우리의 삶과 연결돼 상상의 폭을 넓힌다.

제인 진 카이젠 작가는 제주라는 섬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매료돼 제주 삶의 모습을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해석한 7점의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7개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듯 설치돼 마치 제주를 경험 혹은 체험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전시실을 둘러보고 나오면 작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4개의 전시를 본 듯한 느낌일 것이다. 그중에서 관람자로서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은 작가의 작품을 떠올리며 올해는 어떤 작가가 최종 선정될 것인가 예측해보는 재미를 가져볼 수 있다. 물론 수상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올해의 작가가 어떤 활동으로 다음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연결해보는 것도 좋다.

올해의 작가 2024 최종 수상자는 2월 중순께 발표된다. 2025년 하반기에 또 다른 올해의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니 매년 돌아오는 ‘올해의 작가’를 기대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자 김유진은 공공미술에 대한 논문을 썼고, 문화라는 전체적 맥락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술을 연구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제인 진 카이젠(위) 작가와 권하운 작가의 전시 전경.